

2학년 4반 월 독서토론

주제를 : 효은이조

조원 : 이윤킨, 조현정, 이해연, 박효은, 백나영

도서명	도전과 도전이 있는 미래를 말한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저자에 전수교대로 학과체제를 갔을때 만난 천호정 교수님께서 선물로 이책을 주셨는데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진 사람들은 읽어보면 좋은것 같아서 이책을 선택하게 됐다.	
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	
백나영 - '학생이야 말로 교육의 중심이니까요.' 이 구절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에 대해 생각해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인상깊었다.	
이해연 - "인도 뉴델리에 가면 마하트마 간디의 묘가 있는데 그 묘비에 '나라가. 망할 정도 : 거기서 사회악' 이라는 게 새겨져 있죠. 원석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평계. 희생없는 종교, 그리고 인간성 없는 과학.' 이것이 간다가 이 시대에 던진 해독입니다." 라는 구절이 간디의 묘에서 거기서 사회악을 언급하며 인격없는 교육을 강조한게 인상깊었으며 현대교육의 문제를 날카롭게 말하고 있어 더 마음에 와 닿고 공감갔다.	
조현정 - "하나의 상처는 하나의 도전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나중에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면 그 수많은 상처는 훈장이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초교의 선풍은 조현하거 않는 것이라든 친한심 교수님거 말이 떠올랐다. 상처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공도 이루지 못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여서 좋게 기억받았다.	
박효은 - "자신의 인생을 탐구하는 것보다 더 큰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 꼭 책상 앞에 앉아서 교과서를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공부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읽고 꼭 풀게 푸는게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탐구하는것도 공부하는게 인상깊었다. 내가 공부한다고 문제만 푸는데 아니라 내 인생도 탐구하는 것도 필요하거 같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되므로 내가 누군가에게는 문제만 풀게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탐구해볼수 있게 가르쳐주고싶다.	
이윤킨 - "죽어하는 것로 살하는것도 없는 이에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원가 하고 싶어하고 문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발전해서 못할 뿐이에요." 라는 구절은 표창에 취미와 특기를 이루것으로 가지게 앞섰다고 생각했던 제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안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미래를 위해 저가 정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단상을 가져갈것입니다.	

배너영 - "이 생활을 개인이 위해서가 아닌, '함께'를 위하여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만들려면 공평이 그것이지  
연말서이고 공평시켜야 해. 그야 이 사회가 같이 성장하고 불평등을 적자가 해소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 화교에게 이미 성격에 따른 차별이 판박이하고 있어 학생들은 화교에게 은혜가 아니라  
연연 양에 대한 차별을 배우고 싶었던 생각입니다

조현영 - "교사는 4단계로 나뉘었습니다. '보통교사'는 자격인데. 좋은 교사는 각 기르는데.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나서보인다.  
양재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지핀다."

이 구절은 먼저 교사는 나눌 수 없이 모두 불꽃을 하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사를 4단계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나의 의견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혜연 - "자유학기제는 시험의 부담을 줄여서 시간을 두고 아이들한테 자신의 탐구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어떤 모순에 실패하고 내가 무언에 관여하지 않는지 몰라 간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표출점을 안에서 제해서 주는 거죠" 이 구절에서 나는 자유학기제가 진로탐색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시험을 먼저 읽어나 간혹이 풀리고 공부를 게을리 않아 다음 학년은 준비하는데 힘들었다

박효근 - "... 아이들이 교실 예, 운동장에서 경험한다는 협력하는 단계를 같이 거쳐야 해"

이 구절에서 내 생각은, 물론 서로 협력하는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너영은 서로 함께해서 도와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떤게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도와주고 도와주는  
때문에 경쟁도 중요하지만 경쟁도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이나 양립

전체적으로 느낀 점

조현병 - 이 책은 내가 근 처에 있는 친구들 중 가장 관심있게 읽은 책이었다. 이 책은 교육을 받을 때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었다.

박효은 - 기사를 골라본 나에게도 나중에 어렵게 가르치는 교사가 될지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다.

나나 -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미래에 대해 여러 고민도 받을 수 있는 책이었다.

이유진 - 청원병 교수님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선택은 교육의 취제인 학습이 하는 것인데 남들이 정해준 대로, 남들 의견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나로 관음계 생각함이다

조현경 - 교사는 학생의 공부만이 아닌 모든 면을 다 지도해야 한다. 한 반의 리더로서. 내가 교사가 된다면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교사가 되고, 단지 지도자는 교사가 아닌 나는 교사가 되기로 나 스스로  
다짐하였다.

박영은 - 내가 내국의 교사가 되면 양재는 표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스승이 되게 되길 바라고  
항상 내가 나로 존재하며 양재도 존재할지 아닌 기를 의심할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각으로 치음부분에 광범으로 교사, 교육, 여러 교육생들은 책으로 알려주고 그 뒤엔 인터뷰 형식, 대안형식으로 여러전문가 그에 대한 답변들이 있어 좋았고, 직접 겪은 일들이나 상황들을 함께 설명해주니 더 공감과 이해가 가능할것다. 그리고 꼭 교사들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물은 교장과 공감을 해주는 책일것 같다.

